

상담자의 슈퍼비전 경험이 상담자 발달에 미치는 영향: 슈퍼비전 만족도의 조절효과

김정희, 하정희*
한양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The Effect of Counselor's Supervision Experience on Counselor Development: Moderating Effect of Supervision Satisfaction

Joung-Hee Kim, Jung-Hee Ha*
Graduate School of Counseling Psychology, Hanya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상담자의 슈퍼비전 경험이 상담자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상담자 슈퍼비전 경험과 상담자 발달과의 관계에서 슈퍼비전 만족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서울, 경기, 강원, 전라 지역의 공공 기관, 학교, 대학교, 전문 상담기관 등에서 상담 실무에 근무하는 상담자 299명을 대상으로 연구변인들에 대한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개인슈퍼비전 횟수와 집단슈퍼비전 참여 횟수는 상담자 발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상담자 발달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상담자의 연령과 상담경력으로 나타났다. 셋째, 슈퍼비전 횟수와 상담자 발달의 관계에서 슈퍼비전 만족도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슈퍼비전을 개인슈퍼비전 횟수와 집단슈퍼비전 횟수로 나누어 각각 살펴보았다. 그 결과, 집단슈퍼비전 횟수와 상담자 발달(사례이해) 간의 관계에서 슈퍼비전 만족도의 조절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상담자들의 슈퍼비전에 긍정적인 경험이 이후의 상담 성과와 상담의 질적인 측면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슈퍼비전에 대한 시사점과 제한점에 대해 논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a counselor's supervision experience on counselor development, and verifies the moderating effect of supervision satisfac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unselor's supervision experience and counselor development. Data were collected via survey administered to 299 counselors who were actively engaged in counseling practice for institutions and public organizations in Seoul, Gyeonggi, Gangwon, and Jeolla regions, such as schools, universities, and professional counseling services. Data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SPSS version 21.0.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amount of participation in individual supervision and group supervision had a significant effect on counselor development. Second, age and years of counseling experience had major effects on counselor development. Third, when the moderating effect of supervision satisfac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mount of participation in individual or group supervision and counselor development was verified, it was found that supervision satisfaction had a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mount of participation in group supervision and counselor development (regarding the level of understanding with cases). The result can be interpreted as meaning that a counselor's positive supervision experience has a direct influence on the outcome and quality of counseling services. Based on these results, proposed implications are presented regarding counseling supervision.

Keywords : Counselor, Supervision, Supervision Experience, Counselor Development, Supervision Satisfaction

*Corresponding Author : Jung-hee Ha(Hanyang Univ.)

email: hajung366@hanyang.ac.kr

Received February 28, 2020

Revised April 16, 2020

Accepted May 8, 2020

Published May 31, 2020

1. 서론

최근 상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증가하면서 상담성과의 입증에 관한 논의 또한 확대되는 추세이다 [1]. 상담 실무에서 상담자(counselor)들이 당면하게 되는 문제들은 개개인의 성장과 경험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하나의 해결책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정해진 이론이나 절차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오로지 상담자 개인의 상담경험과 지식에 따라 상담성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속적인 공부와 교육이 필요하다. 이처럼 상담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상담자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가장 보편적이면서 효과적으로 활용되는 상담자 교육은 슈퍼비전이다[2]. 슈퍼비전은 상담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을 통해 상담 실제에서 실천적인 경험을 통합시키는 과정으로, 상담자 훈련을 위해 가장 많이 활용되는 교육방법으로 [3], 상담자 발달(counselor development)을 돕는 가장 중요한 학습경험 중 하나이다[4]. Grenben[5]은 슈퍼비전을 통해서 상담자가 자신이 진행하고 있는 상담 전반에 걸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적절한 안내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슈퍼비전은 상담이론과 상담의 실재를 연결해 주는 다리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6]. 슈퍼비전에서 슈퍼바이저는 슈퍼비전을 통해 상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핵심 내용을 설명하고 시범을 보이는 기회를 제공하고 슈퍼바이저는 실제적인 상담관계 속에서 이러한 과정을 재해석함으로써 상담에 적용하게 된다[7]. 따라서 전문 상담자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지식과 함께 상담실습에 대한 슈퍼비전이 반드시 필요하다[3].

이러한 슈퍼비전은 장기간에 걸친 평가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상담에 대한 이론과 지식을 습득하고, 실천적 경험을 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치며[8] 상담의 전문성을 유지하는 핵심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9].

국내 슈퍼비전에 대한 선행연구는 김계현[6]의 연구를 시작으로 꾸준히 진행되고 있지만, 상담의 다른 영역에 비해서 그 수가 매우 적은 실정이다[1]. 개인수퍼비전 교육내용 요구분석[10-12],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저의 관계[13,14], 상담자의 슈퍼비전 경험[15-18], 슈퍼바이저 스타일에 따른 슈퍼비전 성과[19-21]로 점차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슈퍼비전 경험(supervision experience)이 상담자 성장과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상

담자의 슈퍼비전 경험을 개인수퍼비전 혹은 집단수퍼비전 별로 구체적으로 나누어 살펴본 연구도 드물었고, 상담자 슈퍼비전 경험과 상담자 발달 간의 관련성을 알아본 연구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의 성장 발달에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슈퍼비전 경험과 상담자 발달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상담자 발달에 대해 슈퍼비전 이론가들은 상담자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발달단계를 거친다고 보았다 [6,22,23]. Skovholt[24]는 상담자의 발달과 성장은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훈련과 경험을 통한 개인의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상담자 발달 모델에서는 상담자 발달수준에 따라 슈퍼비전을 다르게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한다[25]. 그러기 위해서는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저 모두에게 교육적인 효과를 얻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지식의 일환으로 상담자 발달이론에 기초한 발달 단계에 따른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25]. 상담자 발달은 이론적 교육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실습을 통해 이루어지는데[26], Hogan[27]부터 Skovholt와 Rønnestad[28]까지 발달 이론가들은 슈퍼비전 초기단계에 슈퍼바이저들은 의존과 모방성이 강하나 이후 자율과 의존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는 중기단계를 거치게 되면서 독립적인 전문가인 마지막 단계에 이른다[28]고 하였다. 상담자 발달과 관련하여 심홍섭[29]은 상담자 발달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준거개념으로 상담대화기술, 알아차리기, 사례이해, 상담계획, 인간적·윤리적 태도를 제안하였다. 하위 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담대화기술은 내담자가 표현하는 내용을 정확히 알아듣고 이해하는 의사소통기술이며, 사례이해는 내담자가 호소하는 문제와 상담을 받고자 하는 이유를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이다. 알아차리기는 상담자-내담자 사이의 상호작용(감정, 생각, 의도, 의문 등)과정을 통해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고, 상담계획은 사례이해에 기초하여 상담목표를 설정하여 적절한 상담 전략 및 방법을 통해 적절한 상담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인간적·윤리적 태도는 내담자를 한 인간으로서 존중하여 수용하는 태도를 말하며 상담자의 진솔성, 자신감, 내담자를 향한 인내심과 긍정적인 시각, 윤리적인 태도, 신념 등이 포함된다.

이와 같이 상담자 발달이론은 학자마다 구분하는 영역과 수준이 차이가 있지만, 연속 선상에서 발달을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 발달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심홍섭[29]의 상담자 발달수준 척도(KCLQ: Korean Counselor Level Questionnaire 이

하 KCLQ)를 적용하였다.

한편, 상담 슈퍼비전에서 상담자 자신의 자각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자가 각각하게 되는 내용을 통해 상담능력이 확장되며 상담과정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30]. 상담자의 슈퍼비전 경험에 따른 슈퍼비전 시행에 대한 요구와 기대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밝힌 Stoltenberg[23]의 연구에서 상담자는 1단계에서는 상담 기술습득을 원하지만,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으로 인해 슈퍼바이저의 지시와 조언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는 여전히 의존적 요구를 강하게 가지면서도 자신의 사례진행에 대한 알아차림이 증가하면서 자기 자신만의 고유한 동기와 행동에 통찰력을 가지게 됨으로써 자율성을 원하게 된다. 3단계에서 상담자는 내담자에 대한 공감 수준이 높아지고 자기 개성을 발전시키며 슈퍼바이저와 동료관계를 원함과 동시에 자문을 구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슈퍼바이저가 경험을 예시화하여 자신과 나누기를 원한다. 마지막으로 4단계에서는 슈퍼바이저와의 자문을 통해 (슈퍼바이저인) 자신 또한 슈퍼바이저에게 피드백을 제공하고 싶어 한다. 따라서 같은 상담기법을 적용한다고 할지라도 상담자가 어떤 자질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내담자에게 전혀 다른 영향을 끼칠 수 있다[6,31]. 또한, 상담자의 발달이 잘 이루어지게 되면 상담 안에서 내담자의 긍정적 변화를 끌어올려 주며 이는 상담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32,33]. 상담자 발달수준이 높을수록 상담성도가 높다는 것이 지속적으로 밝혀지고 있는 등[34-36], 상담자 발달은 상담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담자의 전문성 발달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상담자의 발달수준이 높아질수록 심리적 소진을 덜 느끼고[37], 정서조절 능력, 조망수용능력, 상담에 대한 안목과 통찰이 높아지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38]. 또한, 사례개념화에서 내담자의 문제에 대해 분화하는 특징이 많아지고[39], 추론 능력이 높아지며 자기위로 능력과 역전이 관리능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40]. 그러나 상담을 공부하는 모든 상담자들 혹은 상담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 모두가 동일한 발달단계를 거치는 것은 아닐 수 있으며, 똑같은 수준으로 발달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였다[41,42]. Skovholt 등[41]은 상담자 발달 전반에 관한 연구를 통해 상담자의 발달은 상담자의 성장과 관련해서 필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나 이는 불완전하며 누구나 다 같이 발달하며 성장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상담자 발달을 위한 상담실습이 양적인 측면 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43].

이렇듯, 모든 상담자들이 동일한 상담 발달단계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며, 상담실습의 양적, 질적 측면을 함께 고려함이 중요하다고 간주할 때 상담실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슈퍼비전 및 슈퍼비전 만족도(supervision satisfaction)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담 슈퍼비전 경험과 상담발달 간의 관련성을 살펴봄과 더불어, 이들 간의 관계가 슈퍼비전 만족도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슈퍼비전 만족도란 슈퍼비전의 질과 욕구에 대한 슈퍼바이저의 지각으로써 슈퍼비전의 다양한 영역에 대하여 만족하는 정도를 의미한다[44]. Ellis와 Ladany[45]는 슈퍼바이저가 슈퍼비전에 만족할수록 스스로 열심히 배우고자 하는 동기가 높아지고, 자신이 원하는 목표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고 하였다. 긍정적인 슈퍼비전 경험이 이후 상담의 성과와 질적인 측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46], 슈퍼비전을 통해 상담자의 상담기술과 유능감이 발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47]. 전문적이고 유능한 상담자로 성장하기 위한 훈련 과정은 다른 분야에 비해 많은 노력과 시간이 요구되고 있다[21]. 많은 상담자들이 전문적인 상담자로 성장하기까지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슈퍼비전 경험[48]이라고 보고하고 있으며, 슈퍼비전 경험에서 슈퍼바이저들의 슈퍼비전에 대한 만족도는 슈퍼비전 지속 여부를 가늠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21]. 슈퍼비전 만족도는 슈퍼비전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가장 널리 사용되는 변인으로[49], 슈퍼바이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인식, 슈퍼바이저가 가지고 있는 자질과 수행능력에 대한 알아차림, 슈퍼비전에서 자신이 의견을 표현했을 때 경험하게 되는 편안함을 의미한다[50].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들의 슈퍼비전 경험과 상담자 발달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이들 간의 관계는 슈퍼비전 만족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가정하였다. 즉, 슈퍼비전 경험이 많을수록 상담자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며, 더 나아가 슈퍼비전 만족도 수준이 커질수록 상담자 발달을 더 촉진시킬 것이라는 것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효과적인 슈퍼비전은 상담자가 사례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고 이는 상담자 스스로의 성취감을 높여줄 수 있기 때문에 상담자가 슈퍼비전을 통해 얻은 만족감은 상담 실제에서 자신감을 갖는 것과 연관된다. 즉, 상담자가 슈퍼비전을 통해 얻은 만족감은 상담에서의 조망능력을 향상시키며, 그 결과 내담자의 문제에 대한 효과적 개입을 증진시킨다[51]. 또한 슈퍼비전에 대한 만족감이 커질수록 상담자는 상담 장면에서 자신의

전문가적 역량을 발달시키고자 하는 동기가 고양된다 [52]. 이와 비슷하게 Ellis 등[45]은 슈퍼바이저가 슈퍼비전에 만족할수록 슈퍼바이저는 자발적으로 상담을 열심히 배우고자 노력함으로써 자신이 추구하는 상담목표에 도달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슈퍼비전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들은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야기하고 스트레스와 저항감이 증가하여 상담 성과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였다[53]. 이는 슈퍼비전 관계에서 역할 갈등이나 모호함을 경험하게 되면 슈퍼비전 만족도가 낮아지고 슈퍼바이저의 학습 동기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13]. 이는 슈퍼비전경험에 따라 상담자의 성장과 발달이 달라질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슈퍼비전 경험이 많을수록 전문가적 역량이 증진됨에 따라 상담자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며, 많은 슈퍼비전 경험뿐 아니라 슈퍼비전을 통해 느끼는 만족감이 동시에 크다면 상담자들은 더 많은 동기부여와 자신감을 가지므로써 상담성과도 커질 것이고 상담자 발달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슈퍼비전 경험이 있는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먼저, 상담자의 슈퍼비전 경험과 상담자 발달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즉, 상담자의 연령과 상담경력을 통제한 후, 상담자의 슈퍼비전 경험을 개인수퍼비전 참여횟수, 집단수퍼비전 참여횟수, 집단수퍼비전 발표횟수로 나누어 이들이 상담자 발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상담자의 슈퍼비전 경험과 상담자 발달 간의 관계가 슈퍼비전 만족도 수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상담자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슈퍼비전 경험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슈퍼비전 경험과 발달과 관련하여 슈퍼비전 만족도의 역할을 함께 검토함으로써, 상담자의 전문적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슈퍼비전 경험과 관련된 보다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종합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담자의 슈퍼비전 경험과 상담자 발달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슈퍼비전 만족도 수준에 따라 상담자의 슈퍼비전 경험과 상담자 발달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2. 방법

2.1 연구절차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해 서울, 경기, 강원, 전라 지역

의 상담기관 및 대학교, 사설상담기관 등에서 상담 실무에 근무하는 상담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 방식은 직접 및 우편을 통해 총 450부를 배부되었으며, 350부가 수거되었다. 이 중 설문을 제대로 완성하지 않았거나 성의 없는 답변이 많은 51명이 제외되어 분석대상은 총 299명이다.

2.2 측정도구

2.1.2 슈퍼비전 경험

슈퍼비전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사용하여 상담경력(개인 면접 상담경력에 한함) 연수를 기입하도록 하였으며, 상담자들의 슈퍼비전 받은 경력(개인면접 사례에 한함)을 개인수퍼비전 횟수, 집단수퍼비전 참여횟수, 집단수퍼비전 발표횟수를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하였다.

2.1.2 상담자 발달수준

상담자 발달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심홍섭[29]이 개발한 KCLQ를 사용하였다. 상담자 발달수준은 다섯 개의 하위 영역으로서 그 구성요소는 상담대화기술(counseling skills and techniques)과 관련한 10문항, 알아차리기(emotional awareness) 9문항, 사례이해(case conceptualization) 11문항, 상담계획(strategy) 11문항, 인간적·윤리적 태도(humanistic and ethical attitudes) 9문항으로 총 50문항으로 되어 있다.

2.1.3 슈퍼비전 만족도

슈퍼비전 만족도 질문지는 '내담자 만족도 질문지(The Client Satisfaction Questionnaire)'를 Ladany, Hill, Corbett과 Nutt[44]가 슈퍼비전 상황에 맞도록 개발한 슈퍼비전 만족도 설문지(SSQ: The Supervisory Satisfaction Questionnaire)를 사용하였다. 설문은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슈퍼비전 질, 욕구충족, 목표충족, 추천의사, 효율성, 전체 만족도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점수가 높아질수록 만족도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2.3 분석방법

SPSS 21.0을 이용하여 전체 변인들의 빈도,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상담자 발달에 대한 상담자의 연령, 상담경력 및 슈퍼비전 경험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독

립변인들 간 다중공선성 문제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Dubin-watson을 통해 잔차의 독립성이 충족되는지 확인하였고 공차한계 및 VIF(Variance Inflation Factor)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들에 사용된 변인들의 공차한계는 0.1이상이었으며 VIF가 10이하로 도출되었다. 또한 Dubin-watson 각각을 통해 정상분포 곡선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상담자의 수퍼비전 경험이 상담자 발달 간의 관계에서 수퍼비전 만족도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호작용 변인을 포함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절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예측변인과 조절변인을 평균중심화 하였으며, 평균을 중심으로 하여 \pm 표준편차 지점의 준거변인 값을 추정하여 도식화하고 이를 그래프로 제시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상담자의 특성을 Table 1을 통해 살펴보면, 91퍼센트로 여성 상담자가 주를 이루었다. 소속은 시 군 구 청소년상담기관 111명(37.1%), 기타(학교, 병원, 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54명(18.1%), 대학학생상담센터 52명(17.4%), 사설상담센터 49명(16.4%), 소속 없음 27명(9.0%), 사회복지관 5명(1.7%)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석사졸업 174명(58.2%), 석사과정 58명(19.4%), 석사수료 22명(7.4%), 박사과정 21명(7.0%) 등으로 나타났고, 전공은 상담심리 121명(40.5%), 상담학과 44명(14.7%), 기타 26명(8.7%), 교육상담 18명(6.0%)의 순이었다. 상담자들이 보유한 자격증은 복수 응답으로 총 442개였는데, 상담심리사 2급을 보유한 상담자 132명(29.9%)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청소년상담사 2급 61명(13.8%), 청소년상담사 3급 58명(13.1%), 기타 53명(12.0%), 자격증 미취득 48명(10.9%), 임상심리사 2급 37명(8.4%), 전문상담사 2급 28명(6.3%), 상담심리사 1급 9명(2.0%), 청소년상담사 1급 6명(1.4%), 전문상담사 1급 4명(0.9%), 임상심리전문가 3명(0.7%), 임상심리사 1급 3명(0.7%)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Variables	Categories	N	%	
Gender	Male	27	9.0	
	Female	272	91.0	
Employment	University counseling center	52	17.4	
	Public counseling center for youth	111	37.1	
	Private counseling center	49	16.4	
	Social welfare center	5	1.7	
	Unemployment	27	9.0	
	Etc.	54	18.1	
	Non-response	1	0.3	
Academic ability	The master's course	58	19.4	
	Master course completion	22	7.4	
	Master's graduation	174	58.2	
	The doctor's course	21	7.0	
	Doctor course completion	12	4.0	
	Doctor's graduation	10	3.3	
Major	Non-response	2	0.7	
	Counseling psychology	121	40.5	
	Education counseling	18	6.0	
	Youth counseling	11	3.7	
	Social welfare	3	1.0	
	Christian counseling	9	3.0	
	Family counseling	16	5.4	
	Art therapy	4	1.3	
	Child counseling	14	4.7	
	Counseling	44	14.7	
	Psychology	7	2.3	
	Psychotherapy	15	5.0	
	Clinical psychology	11	3.7	
	Etc.	26	8.7	
	Total		299	100.0
	Variables	Categories	N	%
Certificate, (Duplicate response)	Expert counselors_frst class (Korean Counseling Psychology Association)	9	2.0	
	Expert counselors_second class(Korean Counseling Psychology Association)	132	29.9	
	Expert clinical psychologis	3	0.7	
	Clinical psychologis_frst class	3	0.7	
	Clinical psychologis_second class	37	8.4	
	Youth counselor_frst class	6	1.4	
	Youth counselor_second class	61	13.8	
	Youth counselor_third class	58	13.1	
	Expert counselors_frst class(Korean counseling association)	4	0.9	
	Expert counselors_second class(Korean Counseling Association)	28	6.3	
	Non certificate	48	10.9	
	Etc.	53	12.0	
Total		442	100.0	

3.2 전체 변인들 간의 상관분석 결과 및 기술통계

상담자들의 연령, 상담경력, 수퍼비전 경험, 수퍼비전 만족도, 상담자 발달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연령은 상담경력 및 상담자 발달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고, 개인수퍼비전 횟수 및 내담자 수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상담경력, 수퍼비전 경험 및 상담자 발달과 대체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여주었다. 수퍼비전 경험 가운데 개인수퍼비전 횟수 및 집단수퍼비전 참여횟수는 상담자 발달과 부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또한 본인 사례로 진행한 집단수퍼비전 횟수는 상담자 발달 하위변인들과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인수퍼비전을 진행한 내담자의 수는 상담자 발달과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3.3 상담자의 수퍼비전 경험이 상담자 발달에 미치는 영향

상담자의 수퍼비전 경험이 상담자 발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상담자 발달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고자 회귀분석을 하였고 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러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고,

Dubin-watson을 통해 잔차의 독립성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공차한계와 VIF 값을 확인하여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Table 3을 통해 보면, 상담자 발달의 하위변인(상담대화기술, 알아차리기, 사례이해, 상담계획, 인간적·윤리적 태도)들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상담자의 연령, 상담경력을 통제변인으로 투입하였고, 독립변인으로 개인수퍼비전 횟수, 개인수퍼비전 받은 내담자 수, 집단수퍼비전 참여횟수, 집단수퍼비전에서의 본인 발표 횟수를 투입하였다. 그 결과, 통제변인으로 투입한 '상담자의 연령'은 상담자 발달의 하위요인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었다. 상담자의 상담경력(개월) 또한 상담자 발달의 '사례이해', '상담계획'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통제변인인 상담자의 연령이나 상담경력이 상담자 발달의 하위변인들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반면, 독립변인으로 투입한 수퍼비전 경험들은 상담자 연령 및 상담경험과 같은 통제변인들에 비해 상담자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만, 상담자 발달의 하위변인 가운데 '상담계획'과 '인간적·윤리적 태도'에 자신이 참여한 집단수퍼비전 경험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Table 2. Means, standard deviation, and bivariate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N=299)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Age	1												
2	Counseling experience	Month	.32**	1										
3		Session	.23**	.49**	1									
4	Experience of supervision	Numbers of individual supervision	.15**	.37**	.27**	1								
5		Numbers of case in individual supervision	.12*	.17**	.05	.16**	1							
6		Numbers of participation in group supervision	.04	.40**	.41**	.16**	.22**	1						
7		Numbers of presentation in group supervision	.05	.32**	.19**	.21**	.17**	.63**	1					
8	supervision satisfaction	.10	.06	.12*	.16**	.08	.09	.03	1					
9	Counselor development	Communication skill	.35**	.26**	.22**	.13*	.11	.16**	.16**	.21**	1			
10		Case understanding	.37**	.36**	.27**	.16**	.09	.13*	.14*	.22**	.77**	1		
11		Awareness	.34**	.25**	.22**	.11*	.07	.15**	.18**	.20**	.80**	.80**	1	
12		Counseling plan	.34**	.30**	.20**	.11*	.04	.10	.17**	.24**	.76**	.78**	.72**	1
13		Ethical attitudes	.29**	.20**	.23**	.04	.03	.08	.13*	.27**	.68**	.67**	.71**	.66**
	M	37.8	48.1	456.9	23.5	4.0	18.0	4.4	3.22	3.04	3.02	3.02	2.82	3.23
	SD	9.49	36.52	776.32	22.22	2.89	24.40	7.94	5.32	0.42	0.43	0.45	0.46	0.40

* $p < .05$, ** $p < .01$

Table 3. The effect of counselor's supervision experience on counselor development

Variables		B	S.E.	β	t	VIF		
Counselor development (Total)	constant	2.45	.083		29.45***		$R^2 = .205$ <i>Adj. R</i> ² = .186 <i>F</i> = 10.71*** Durbin-watson = 2.14	
	Control variables	Age	.012	.002	.302	5.43***		1.13
		Counseling experience(Month)	.002	.001	.164	2.64**		1.40
		Counseling experience (Session)	5.38E-5	.000	.109	1.80		1.33
	Independent variables	Numbers of participation in individual supervision	.000	.001	-.026	-.44		1.22
		Numbers of presentation in individual supervision	.001	.007	.007	.13		1.09
		Numbers of participation in group supervision	-.001	.001	-.062	-.82		2.07
Numbers of presentation in group supervision		.006	.003	.134	1.93	1.75		
Communication skills	constant	2.48	.093		26.56***		$R^2 = .162$ <i>Adj. R</i> ² = .142 <i>F</i> = 8.02*** Durbin-watson = 2.14	
	Control variables	Age	.012	.003	.281	4.93***		1.13
		Counseling experience(Month)	.001	.001	.127	2.00		1.40
		Counseling experience (Session)	5.12E-5	.000	.095	1.53		1.33
	Independent variables	Numbers of participation in individual supervision	6.26E-5	.001	.003	.06		1.22
		Numbers of presentation in individual supervision	.005	.008	.035	.63		1.09
		Numbers of participation in group supervision	.000	.001	.019	.25		2.07
Numbers of presentation in group supervision		.005	.004	.085	1.20	1.75		
Case understanding	constant	2.411	.092		26.27***		$R^2 = .212$ <i>Adj. R</i> ² = .193 <i>F</i> = 11.13*** Durbin-watson = 2.12	
	Control variables	Age	.012	.002	.269	4.88***		1.13
		Counseling experience(Month)	.003	.001	.229	3.72***		1.40
		Counseling experience (Session)	5.40E-5	.000	.098	1.64		1.33
	Independent variables	Numbers of participation in individual supervision	-8.74E-5	.001	-.005	-.08		1.22
		Numbers of presentation in individual supervision	.003	.008	.021	.38		1.09
		Numbers of participation in group supervision	-.001	.001	-.067	-.89		2.07
Numbers of presentation in group supervision		.004	.004	.072	1.05	1.75		
Awareness	constant	2.43	.100		24.35***		$R^2 = .160$ <i>Adj. R</i> ² = .140 <i>F</i> = 7.89*** Durbin-watson = 2.15	
	Control variables	Age	.013	.003	.284	4.96***		1.13
		Counseling experience(Month)	.001	.001	.104	1.62		1.40
		Counseling experience (Session)	6.08E-5	.000	.105	1.70		1.33
	Independent variables	Numbers of participation in individual supervision	.000	.001	-.009	-.16		1.22
		Numbers of presentation in individual supervision	.000	.009	.002	.03		1.09
		Numbers of participation in group supervision	.000	.001	-.009	-.12		2.07
Numbers of presentation in group supervision		.007	.004	.129	1.82	1.75		
Counseling plan	constant	2.19	.102		21.49***		$R^2 = .173$ <i>Adj. R</i> ² = .153 <i>F</i> = 8.64*** Durbin-watson = 2.13	
	Control variables	Age	.013	.003	.270	4.75***		1.13
		Counseling experience(Month)	.002	.001	.191	3.01***		1.40
		Counseling experience (Session)	2.78E-5	.000	.047	.76		1.33
	Independent variables	Numbers of participation in individual supervision	-.001	.001	-.027	-.46		1.22
		Numbers of presentation in individual supervision	-.004	.009	-.023	-.42		1.09
		Numbers of participation in group supervision	-.002	.001	-.092	-1.20		2.07
Numbers of presentation in group supervision		.009	.004	.151	2.14*	1.75		
Ethical attitudes	constant	2.80	.090		31.03***		$R^2 = .132$ <i>Adj. R</i> ² = .111 <i>F</i> = 6.32*** Durbin-watson = 1.98	
	Control variables	Age	.010	.002	.236	4.05***		1.13
		Counseling experience(Month)	.000	.001	.043	.66		1.40
		Counseling experience (Session)	8.07E-5	.000	.158	2.49*		1.33
	Independent variables	Numbers of participation in individual supervision	-.002	.001	-.087	-1.44		1.22
		Numbers of presentation in individual supervision	.000	.008	.001	.024		1.09
		Numbers of participation in group supervision	-.002	.001	-.126	-1.60		2.07
Numbers of presentation in group supervision		.008	.004	.162	2.25*	1.75		

* $p < .05$, ** $p < .01$, *** $p < .001$

3.4 상담자의 수퍼비전 경험과 상담자 발달의 관계에서 수퍼비전 만족도의 조절효과

3.4.1 개인수퍼비전 횟수와 상담자 발달의 관계에서 수퍼비전 만족도의 조절효과

상담자의 개인 수퍼비전 횟수와 상담자 발달의 하위변인들(상담대화기술, 사례이해, 알아차리기, 상담계획, 인간윤리적 태도)의 관계에서 수퍼비전 만족도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세 번의 회귀분석을 차례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 상담자 발달에 대한 개인수퍼비전 횟수와 수퍼비전 만족도 간의 상호작용은 모두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3.4.2 집단수퍼비전 횟수와 상담자 발달의 관계에서 수퍼비전 만족도의 조절효과

상담자가 자신의 사례로 진행한 집단수퍼비전 횟수와 상담자 발달의 하위변인들(상담대화기술, 알아차리기, 사례이해, 상담계획, 인간적·윤리적 태도)의 관계에서 수퍼비전 만족도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세 번의 회귀분석을 차례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 상담자 발달에 대한 집단수퍼비전 횟수와 수퍼비전 만족도의 상호작용은 상담발달의 하위요인 가운데 '사례이해'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다른 상담자발달의 하위변인들에서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따라서 상담 발달의 '사례이해'에 대한 주된 결과를 아래에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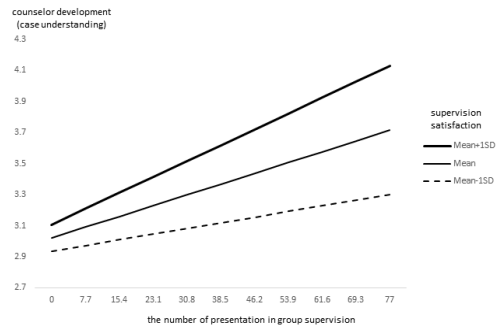


Fig. 1. Relationship between the number of presentation in group supervision and counselor development(case understanding) according to the supervision satisfaction

먼저, 첫 번째와 두 번째 회귀분석에서는 집단수퍼비전 횟수 및 수퍼비전 만족도가 상담자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고 그 결과 이들의 주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beta=.14, p<.05$; $\beta=.21, p<.001$). 다음으로 상담자 발달의 '사례이해'에 대한 집단수퍼비전 횟수와 수퍼비전 만족도의 상호작용 또한 유의하게 나타났다($\beta=.12, p<.05$). 이 결과를 Table 4와 Fig 1을 통해 제시하였다.

Fig 1을 통해 수퍼비전 만족도 수준에 따른 집단수퍼비전 횟수와 사례이해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수퍼비전 만족도가 높은 경우($b=.013, t(299)=3.11, p<.01$)와 중

Table 4. The moderating effect of supervision satisfaction in the number of presentation in group supervision and counselor development(case understanding)

	Independent variables	b	SE	β	t	R^2	ΔR^2	F'	ΔF^2
Counselor development (case understanding)	the number of presentation in group supervision	.060	.025	.139	2.43*	.019	.019	5.89*	5.89*
	the number of presentation in group supervision	.057	.024	.134	2.39*	.065	.046	10.31***	14.47***
	supervision satisfaction	.092	.024	.214	3.80***				
	the number of presentation in group supervision	.071	.025	.166	2.87**	.078	.013	8.37***	4.26*
	supervision satisfaction	.086	.024	.200	3.55***				
	the number of presentation in group supervision x supervision satisfaction	.036	.017	.120	2.06*				

* $p < .05$, ** $p < .01$, *** $p < .001$

간인 경우($b=.009$, $t(299)=2.88$, $p<.01$) 집단수퍼비전 횟수와 사례이해 간 관계가 유의한 정적 관계를 나타내었고, 수퍼비전 만족도가 낮은 경우는 이들 간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b=.004$, $t(299)=1.44$, $n.s$). 이러한 결과를 통해, 상담자의 수퍼비전 만족도가 평균이상 커짐에 따라 자신의 사례를 통해 진행하는 집단수퍼비전 참여 횟수가 많아질수록 사례에 대한 이해 수준이 더 많이 향상됨을 알 수 있다.

3. 논의

본 연구에서는 수퍼비전 경험이 있는 상담자 299명을 대상으로 하여 전문 상담자로 성장하기 위한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수퍼비전 경험이 상담자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수퍼비전 경험과 상담자 발달 간의 관계에서 수퍼비전 만족도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결과를 포함한 논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변인들 간의 상관을 통해 살펴본 결과, 개인수퍼비전 횟수와 집단수퍼비전 참여 횟수는 상담자 발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퍼바이저의 전반적인 수준 변화에 있어서 수퍼비전 형태에 따른 뚜렷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를 보여준 [54]의 연구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수퍼비전 없이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수련생은 수퍼비전과 상담을 함께한 수련생에 비교했을 때 상담자로서의 발달수준이 유의미하게 낮았고[55,56], 상담자가 훈련과 경험을 쌓아감에 따라 상담자 발달에 차이가 있다[57]는 연구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전문 상담자로 성장하기 위해 수퍼비전은 상담자 성장의 필수적인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상담자 발달에 있어서 수퍼비전이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집단수퍼비전 참여 경험에 대해 본인의 사례를 발표한 경험과 그렇지 않은 경험으로 나누어 상담자 발달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본인이 발표한 집단수퍼비전 참여 횟수는 상담자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 수퍼비전을 집단수퍼비전보다 더 선호하고 효과적으로 생각한다는 선행연구들과[58,59]는 다소 다른 결과이다. 이 결과의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개인 수퍼비전에서는 사례 하나하나에 대한 상담자의 개입 및 행동 하나하나에 대한 피드백을 즉각적으로 충분히 제공

받을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9]. 이와 달리 집단 수퍼비전에서는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동료 수련생들의 지지적인 환경이 제공되며, 이를 통해 수퍼바이저는 수퍼비전 상황에서의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게 된다[54,60]. 집단 수퍼비전을 받은 후 수퍼바이저는 수퍼바이저에 대한 의존성이 감소하였고[54,60,61], 자신감이 증가했다[61]. 또한, 집단수퍼비전을 통해 동료 수련생들과 주고받는 피드백 기회를 통해 상호작용함으로써[46,59,61], 다양한 관점과 사고방식을 훈련하고[54,60-63], 높은 수준의 사례개념화 능력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다고 하였다[60]. 또한, 수퍼바이저의 적절한 피드백은 개인수퍼비전에서 부족할 수 있는 피드백의 객관성, 간접경험을 통한 모델링 및 대리학습, 지지경험, 상호작용능력 발달 등을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46,59,61]. 이처럼 수퍼비전 형태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볼 때, 개인수퍼비전과 집단 수퍼비전 별로 그 성과에 있어서 각각 서로 다른 요인들이 부각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개인수퍼비전 경험과 집단수퍼비전 경험 모두가 상담자 발달과 관련되지만, 특히 자신이 직접 발표한 집단수퍼비전 경험은 상담자 발달과 더 밀접하게 관련됨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개인수퍼비전을 받은 '내담자 명수'는 상담자 발달과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상담자들이 유능한 상담자로서 성장하기 위하여 더욱 많은 내담자를 만나는 것보다는 수퍼비전 횟수가 더욱더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양한 통제변인과 함께 이와 관련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상담자의 연령 및 상담경력, 수퍼비전 경험(개인수퍼비전 발표횟수, 집단수퍼비전 참여횟수, 집단수퍼비전 발표횟수)이 상담자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상담자의 발달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연령과 상담경력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상담자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연령과 경력이 높을수록 공감능력과 자기효능감이 높아진다는 [64]의 연구를 지지해주는 결과이다. 또한, 상담경력이 많은 상담자일수록 상담자의 발달수준, 내담자와의 작업동맹, 상담의 성과가 높다는 선행연구 [29,65,66]와 상담교육과정, 사례 수, 이수 학기 수, 상담 연수, 자격증 유무 등 상담자의 경력이 상담자 발달의 주요 요인이라는 선행연구들[13,36,67-70]과도 맥을 같이 한다. 이와 더불어 상담경력 또한 상담자 발달 하위요인 중 사례이해, 상담계획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육/실무/수퍼비전 경험이 높을수록 사례이해, 알아차리기, 상담계획 수준이 높아지고[71],

상담경력이 많아질수록 진행된 슈퍼비전을 통해 실제적인 상담기술과 사례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여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와 상담목표를 설정하고 이와 관련한 상담 전략 및 기술을 상담실제에 사용하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의 연령과 상담경력을 통제한 후, 집단수퍼비전 경험이 상담자 발달의 하위변인인 '상담계획'과 '인간윤리적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집단수퍼비전 발표를 통해 슈퍼바이저의 상담계획능력이 향상되며 내담자를 인간적으로 수용하게 되는 능력이 높아지고, 그 결과 수퍼비전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21]의 선행연구를 지지해 준다. 또한, 상담자 발달수준이 높을수록 삶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을 통해 상담자 스스로 인간적-윤리적 태도가 증가한다는 연구[72]와도 맥을 같이 하는 결과이다.

셋째, 개인수퍼비전 횟수/집단수퍼비전 횟수와 상담자 발달 간의 관계에서 수퍼비전 만족도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 집단수퍼비전 횟수와 상담자 발달(사례이해) 간의 관계에서 수퍼비전 만족도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개인수퍼비전보다 집단수퍼비전의 경험을 많이 하는 것이 상담자 발달의 하위 요인인 '사례이해'에 영향을 미치는데, 집단수퍼비전 경험이 많은 경우 수퍼비전 만족도가 중간이상으로 커짐에 따라 내담자에 대한 사례 이해가 보다 풍부하게 이루어짐을 의미하는 것이다. 앞서 설명한 바 있듯이, 이러한 결과는 수퍼비전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은 이후의 상담 성과와 상담의 질적 측면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들을 지지해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46]. 집단수퍼비전에 많이 참여하는 것도 상담자 발달 중 사례이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수퍼비전의 만족도는 많은 집단 수퍼비전 경험의 효과를 더욱 더 상승시킬 수 있는 조절변인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담자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수퍼비전 경험을 보다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봄으로서 상담자 발달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실천적 함의를 살펴볼 수 있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둘째, 수퍼비전 참여와 상담자 발달과의 관계에서 수퍼비전 만족도의 조절효과를 확인함으로써, 상담자 발달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개인 수퍼비전 및 집단 수퍼비전 경험 간 관계를 살펴봄은 물론, 수퍼비전 만족도가 중간이상으로 커짐에 따라 많은 집단수퍼비전의 경험으로 인한 내담자에 대한 사례 이해가 커진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많은 상담자들이 수퍼비전을 통해 사례개념화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듯이[58,73], 사례개념화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다

양한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담자 교육 현장에서 상담자들을 위한 집단수퍼비전을 준비함에 있어서 상담자의 수퍼비전 만족도가 커질 수 있는 세부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만족도가 큰 집단수퍼비전은 상담자의 사례이해를 증진시킴으로서 상담자의 상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보면, 첫째, 상담자 발달에 영향 미치는 통제변인으로서 연령 및 상담 경력(상담을 한 총 기간)을 고려하였으나, 상담자 발달에 영향 미칠 수 있는 상담 경력에는 '전문가 자격증의 수', '학력' 등 보다 다양한 차원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세부적인 점들을 고려하여 추후 다양한 상담자 발달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이러한 답변만으로 상담자 발달 및 수퍼비전 만족도에 대한 객관성과 정확성을 평가하기에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상담자 발달을 측정할 때 상담자 자신은 스스로의 발달수준을 높게 평가한다[29]. 따라서 자기보고식이 아닌 보다 다양한 관점으로 상담자 발달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1] K. H. Du, K. H. Kim, D. M. Kim, "The trend and issues of research on supervision outcom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9, No.3, pp.1007-1021, Sept. 2008. DOI: <https://doi.org/10.15703/kjc.9.3.200809.1007>
- [2] E. J. Lee, *The Influence of Supervisory Style and Supervisory Working Alliance on Feedback Acceptance of Supervisee*,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of Education, Seoul, Korea, 2013.
- [3] J. M. Bernard, R. K. Fundamentals of clinical supervision (5th ed.), p.456, Allyn and Bacon, 2009.
- [4] M. S. Lee, K. I. Kwon, "Needs assessment on educational contents of group work supervision according to careers of group worker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10, No.2, pp.911-931, Oct. 2009. DOI: <https://doi.org/10.15703/kjc.10.2.200906.911>
- [5] S. E. Grenben, "Interpersonal aspects of the supervision of individual psychotherapy", *American Journal of Psychotherapy*, Vol.45, No.3, pp.306-316, Jul. 1991. DOI: <https://doi.org/10.1176/appi.psychotherapy.1991.45.3.306>
- [6] K. H. Kim, "Multiple-case studies of counseling supervision",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 Psychotherapy*, Vol.4, No.1, pp.19-53, Jun. 1992.
- [7] E. L. Holloway, Clinical supervision: A systems approach, p.216, Sage Publications, 1995.
DOI: <http://dx.doi.org/10.4135/9781452224770>
- [8] J. M. Bernard, R. K. Goodyear, Fundamentals of clinical supervision (3rd ed.), p.448, Allyn and Bacon, 2003.
- [9] E. L. Holloway, "Spervision: Its contributions to treatment efficac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63, No.2, pp.207-213, Apr. 1995. DOI: <https://doi.org/10.1037/0022-006X.63.2.207>
- [10] K. H. Kim, S. J. Moon, "Educational need assessment of counseling trainees in supervision",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12, No.1, pp.1-18, Jun. 2000.
DOI: <https://doi.org/10.15703/kjc.10.2.200906.911>
- [11] J. I. Shin, *Educational Need, Actuality, and Satisfaction Assessment of The Contents of The Education In Individual Counseling Supervision*, Master's Thesis, Kyungsoong University of Education, Busan, Korea, 2003.
- [12] E. H. Song, *A Study of Supervision Educational Contents Needs, Actual Condition and Satisfaction*,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of Counseling Psychology, Seoul, Korea, 2003.
- [13] E. J. Son, Y. S. Lim, S. K. Yoo, "The influence of the supervisory working alliance and the supervisee's experience level on his or her role difficulties and supervision satisfaction",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18, No.4, pp.695-712, Nov. 2006.
- [14] H. N. Choi, *Dimensionality of Supervisees' Perception of a Good Supervisory Relationship*, Ph.D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al Counseling, Seoul, Korea, 2007.
- [15] S. H. Jee, C. M. Park, Y. S. Lim, "Intern counselors' helpful experiences & regrets in the individual counseling supervision",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17, No.1, pp.75-90, Feb. 2005.
- [16] K. Y. Bang, "A phenomenological investigation of counselors' experience in supervision: An application of the grounded theory",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18, No.2, pp.233-254, May 2006.
- [17] N. H. Sohn, *Beginning Counselors Self-Enhancing Bias and Perceived Threat in Counseling Supervision*, Ph.D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of Psychology, Seoul, Korea, 2007.
- [18] S. A. Kim, *Novice Therapists' Perceived Experience in Group Supervision: Comparison between High and Low Neurosis*,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of Educational Psychology, Seoul, Korea, 2008.
- [19] Y. J. Kim, *The Relation between the Tasks and Functions of Supervision and Supervisee's Supervision Satisfaction*,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of Psychology, Seoul, Korea, 2004.
- [20] J. Y. Hong, *The Influence of Supervisory Style on the Process and Outcome of Counseling Supervision*, Ph.D dissertation, Hongik University of Counseling Psychology, Seoul, Korea, 2005.
- [21] J. H. Kim, *The Effect of Supervisee's Developmental Levels, Supervision Expectation and Perceived Supervision Style on Supervision Satisfaction*, Ph.D dissertation, Kangnam University of Educational Counseling, Yongin, Korea, 2007.
- [22] C. Loganbill, E. Hardy, U. Delworth, "Supervision: A conceptual model", *The Counseling Psychologist*, Vol.10, No.1, pp.3-42, Mar. 1982.
- [23] C. Stoltenberg, "Approaching supervision from a developmental perspective: The counselor complexity model",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28, No.1, pp.59-65, Jan. 1981.
- [24] T. M. Skovholt, *The resilient practitioner: Burnout prevention and self-care strategies for counselor, therapists, teachers and health professionals*, p.230, Allyn and Bacon, 2000.
- [25] J. Ha, J. Y. Hong, "Developmental process of counselor in experience of group supervision", *Asian Journal of Education*, Vol.12, No.3, pp.279-303, Sep. 2011.
DOI: <https://doi.org/10.15753/aje.2013.14.1.014>
- [26] J. H. Park, K. H. Kim, A. Y. Noh, J. S. Kim, *Youth counseling supervision*, p.395, Youth Dialogue Plaza, 1996.
- [27] R. A. Hogan, "Issues and approaches in supervision",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Practice*, Vol.1, No.3, pp.139-141, May 1964.
DOI: <https://doi.org/https://doi.org/10.1037/h0088589>
- [28] M. H. Rønnestad, T. M. Skovholt, "The journey of the counselor and therapist: Reseach findings and perspectives on professional development",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Vol.30, No.1, pp.5-44, Sep. 2003.
DOI: <https://doi.org/10.1177/089484530303000102>
- [29] H. S. Sim, *Assessment of the Developmental Levels of Korean Counselors*, Ph.D dissert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of Guidance and Counseling, Seoul, Korea, 1998.
- [30] Y. S. Hong, *The Effects of Counselors' Awareness in Supervision on the Counseling Process*, Ph.D dissertation, Baekseok University of Christian Counselling, Cheonan, Korea, 2012.
- [31] P. C. Weathford, D. Brooks, L. B. Allred, "Keeping up with the times: Improving the modern counselor through professional identity development, technological policy, and positive risk taking",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logy*, Vol.1, No.1, pp.1-17, Jun. 2016.
- [32] A. Smith, R. L. Koltz, "Supervision of School Counseling Students: A focus on personal growth, wellness, and development", *Journal of School Counseling*, Vol.13, No.2, pp.1-34, 2015.

- [33] D. A. Lane, Counselling psychology in organisations: From problem fixing to emergence and growth, p.656, *The Handbook of Counselling Psychology*, 2016, pp.446-464.
- [34] D. Y. Park, *The Moderating Effect of Counselor's Self-Care in the Relationship of Counselor's Developmental Level and Counseling outcome*,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of Education, Seoul, Korea, 2016.
- [35] D. S. Yoo, *Meta-analysis of the Relation between Counselor Development and Countertransference and Counseling outcome*, Master's thesis, Korea Counseling Graduate University of General Counseling, Seoul, Korea, 2017.
- [36] K. W. Lim, *The Effects of Counselor Development Level and Countertransference Utilization Ability on Counseling outcome*, Ph.D dissertation, Seoul Women's University of Education Psychology, Seoul, Korea, 2008.
- [37] J. H. Park, *The Relations of Soothing Ability, Spiritual Well-being, Counselor Development Level and Burnout of Counselors*,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of Counseling Psychology, Bucheon, Korea, 2006.
- [38] S. L. Lee, S. H. Cho, "A study of the counselor development and wisdom: comparison of the counselor's wisdom of the level of counselor development",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21, No.1, pp.69-91, Feb. 2009.
- [39] E. J. Sohn, H. S. Lee, "The differences of case conceptualization according to counselor's development levels: Focus on cognitive structure through concept map",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14, No.4, pp.829-843, Nov. 2002.
- [40] H. J. Kim, "The relationship among counselors' developmental level, soothing ability, and counter transference management ability", *Student Life Study*, Vol.13, pp.105-135, 2005.
- [41] T. M. Skovholt, M. H. Ronnestad, "Themes in therapist and counselor development",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Vol.70, No.4, pp.505-515, Mar. 1992. DOI: <https://doi.org/10.1002/j.1556-6676.1992.tb01646.x>
- [42] A. E. Luther, P. Barnes, "Development and Sustainability of ePortfolios in counselor education: An applied retrospective", *International Journal of ePortfolio*, Vol.5, No.1, pp.25-37, 2015.
- [43] E. R. Rodolfa, J. J. Owen, S. Clark, "Practicum training hours: Fact and fantasy", *Training and Education in Professional Psychology*, Vol.1, No.1, pp.64-73, Feb. 2007. DOI: <https://doi.org/10.1037/1931-3918.1.1.64>
- [44] N. Ladany, C. E. Hill, M. M. Corbett, "Nature, extent, and importance of what psychotherapy trainees do not disclose to their supervisor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43, No.1, pp.10-24, 1996. DOI: <https://doi.org/10.1037/0022-0167.43.1.10>
- [45] M. V. Ellis, E. B. Ladany, Inferences concerning supervisees and clients in clinical supervision: An integrative review, p.60, *Handbook of psychotherapy supervision*, 1997.
- [46] S. E. Lee, N. U. Jeoung, "Research of novice theraphyst' experience in group supervision",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15, No.3, pp.441-460, Aug. 2003.
- [47] J. K. Hur, *A Qualitative Case Study on Counselor Development in Reflection Centered Supervision*, Ph.D dissertation, Seoul Women's University of Education Psychology, Seoul, Korea, 2009.
- [48] H. R. Choi, The current state of supervisee education and supervision, Academic seminar Report, Student Life Counseling Institute of Hanyang University, Korea.
- [49] Fernando, Delini M, "Supervision by doctoral students: A study of supervisee satisfaction and self-efficacy, and comparison with faculty supervision outcomes." *The Clinical Supervisor*, Vol.32, No.1, pp.1-14, Apr. 2013. DOI: <https://doi.org/10.1080/07325223.2013.778673>
- [50] N. Ladany, M. V. Ellis, M. L. Friedlander, "The supervisory working alliance, trainee self-efficacy, and satisfaction",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Vol.77, No.4, pp.447-455, Dec. 2011. DOI: <https://doi.org/10.1002/j.1556-6676.1999.tb02472.x>
- [51] S. H. Sohn, "Supervisees' Nondisclosure in Counseling Supervision",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17, No.1, pp.57-74, Feb. 2005.
- [52] K. Hyrkäs, "Clinical supervision, burnout, and job satisfaction among mental health and psychiatric nurses in finland", *Issues in mental health nursing*, Vol.26, No.5, pp.531-556, Jun. 2005. DOI: <https://doi.org/10.1080/01612840590931975>
- [53] T. Butterworth, L. Bell, C. P. M. Jackson, "Wicked spell or magic bullet? A review of the clinical supervision literature 2001-2007", *Nurse Education Today*, Vol.28, No.3, pp.264-272, Apr. 2008. DOI: <http://dx.doi.org/10.1016/j.nedt.2007.05.004>
- [54] D. Ray, M. Altekruise, "Effectiveness of group supervision versus combined group and individual supervision",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Vol.40, No.1, pp.19-30, Dec. 2000. DOI: <https://doi.org/10.1002/j.1556-6978.2000.tb01796.x>
- [55] C. E. Hill, C. Charles, K. G. Reed, "A longitudinal analysis of changes in counseling skills during doctoral training in counseling psycholog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28, No.5, pp.428-436, 1981. DOI: <https://doi.org/10.1037/0022-0167.28.5.428>
- [56] M. O. Wiley, P. B. Ray, "Counseling supervision by developmental level",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33, No.4, pp.439-445, Oct. 1986. DOI: <https://doi.org/10.1037/0022-0167.33.4.439>

- [57] S. J. Moon, *Counselling Supervision Educational Needs Assessment*, Master's Thesis, Seoul University of Education, Seoul, Korea, 1999.
- [58] S. K. Yoo, K. H. Du, E. H. Kim, Y. J. Chung, "A study of the supervisee's perception on their supervision experiences in Korea",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10, No.4, pp.1907-1927, Dec. 2009.
DOI: <https://doi.org/10.15703/kjc.10.4.200912.1907>
- [59] R. A. Newgent, H. Davis Jr, R. C. Farley, "Perceptions of individual triadic and group models of supervision: A pilot study", *The Clinical Supervisor*, Vol.23, No.2, pp.65-79, 2004.
DOI: https://doi.org/10.1300/j001v23n02_05
- [60] L. D. Border, "A systematic approach to peer group supervision",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Vol.69, No.3, pp.248-252, Jan. 1991.
DOI: <https://doi.org/10.1002/j.1556-6676.1991.tb01497.x>
- [61] P. V. Staring, S. B. Baker, "Counselor preparation: Structured peer group practicum supervision: Supervisees' perceptions of supervision theory",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Vol.39, No.3, pp.162-176, Mar. 2000.
- [62] Y. G. You, "Group supervision methodology", *Korean Journal of Christian Counseling*, Vol.14, pp.143-170, Dec. 2007.
- [63] L. R. Prieto, "Group supervision: Still widely practiced but poorly understood",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Vol.35, No.4, pp.295-307, Jun. 1996.
DOI: <https://doi.org/10.1002/j.1556-6978.1996.tb01930.x>
- [64] J. R. Joeng, "The effects of self-compassion, age, and counseling experience on counselors' empathy and self-efficacy",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Seoul, Korea, pp.198-198, August 2016.
- [65] S. Y. Jo, K. I. Kwon, "differences in empathic accuracy and counseling satisfaction across counselor's experience levels in early counseling phas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23, No.2, pp.257-275, Apr. 2011.
- [66] J. H. Cho, H. N. Choi, "Moderating effect of counselor development levels: Big five personality traits and working allianc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29, No.2, pp.293-310, Mar. 2017.
- [67] S. K. Yoo, H. W. Shim, "The differences of self-talks according to counselor's developmental level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17, No.4, pp.789-812, Nov. 2011.
- [68] Y. W. Bae, S. H. Cho, "Counselor's self-reflection, supervision, and counselor development", *Journal of Student Guidance and Counseling*, Vol.27, pp.19-42, 2007.
- [69] S. L. Lee, S. H. Cho, "A study of the counselor development and wisdom: Comparison of the counselor's wisdom of the level of counselor development",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21, No.1, pp.69-91, Feb. 2009.
- [70] H. S. Lee, S. H. Joo, H. J. Kim, "Critical incidents experience in counselor intern development",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23, No.4, pp.833-859, Nov. 2011.
- [71] M. J. Kim, H. J. Cho, "Counselor's education, practice, and supervision experience, educational analysis, and counselor development",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16, No.3, pp.67-84, Jun. 2015.
DOI: <https://doi.org/10.15703/kjc.16.3.201506.67>
- [72] M. H. Baek, H. S. Yoo, "The relationships between counselor development level and burnout according to counseling experience: the moderating effects of resilienc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13, No.6, pp.3191-3205, Dec. 2012.
DOI: <https://doi.org/10.15703/kjc.13.6.201212.3191>
- [73] J. H. Son, "Components of effective supervision by supervisor behavior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5, No.2, pp.243-261, May 2004.

김 정 희(Joung-Hee Kim)

[정회원]



- 2016년 2월 : 강남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교육상담전공)
- 2016년 3월 ~ 2020년 3월 : 상명대학교 학생상담센터 책임연구원
- 2017년 9월 ~ 현재 : 한양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아동청소년학상담학과 강사

<관심분야>

청소년상담, 성인상담, 부모상담, 수퍼비전

하 정 희(Jung-Hee Ha)

[정회원]



- 2006년 2월 : 한양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상담심리전공)
- 2009년 8월 ~ 2016년 8월 : 한양사이버대학교 청소년상담학과 교수
- 2016년 9월 ~ 현재 : 한양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교수

<관심분야>

청소년상담, 완벽주의, 청소년의 적응, 애도 및 상실, 다문화상담